

석불 속에 담긴 부처, 다양한 시대의 얼굴



《석불-돌에 새긴 정토의 꿈》 글 최성은·사진 안장현 | 한길아트 | 332쪽 | 값 22,000원

20여 년 간 불교조각을 연구해 온 최성은 교수(덕성여대)가 전국의 산천을 다니며 틈틈이 모은 우리 석굴의 자료를 종합, 《석불-돌에 새긴 정토의 꿈》으로 펴냈다.

“석불이 우수해서 강조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석불은 금불, 금동불과는 달리 훼손의 가능성이 적은 탓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기량이 한껏 드러나는 소조불(흙으로 만든 불상)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고 금동불 경우는 국가가 불교를 탄압할 때 회수해서 동전을 만들기도 했죠. 석불은 그런 점에서 안전했던 거죠.”

무엇보다 석불은 도처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내뿐 아니라 경기도 쪽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국보도 있지만 지방문화재도 많죠. 사람들하고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굳이 사찰을 찾아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부처이기도 하구요.”

어느 시대마다 요구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있다. 시대양식마다 부처님의 모습이 다른 것은 그 이유다. “시대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미술품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양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불상마다 시대적인 특징들은 뚜렷하다. 삼국시대엔 천진한 어린이 같은 이미지이고, 통일신라시대는 국제화된 시기였던 탓에 사실주의적이면서도 이상적이다. 고려시대에는 마치 일반인처럼 현실적인 부처의 모습이 강조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송유역불정책으로 불교가 워낙 쇠퇴해 특별히



특징을 찾기 어렵다.

석불이 많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전란을 겪은 탓에 값진 문화재들은 많이 손실되었다. 하지만 이런 일들도 있다. “몇 년 전 강원도 횡성 지역의 석불을 조사할 때였어요. 미술사 학회지에 나와 있는 1960년대 당시의 사진을 보고 답사를 간 건데 현장에 가보니 머리가 없었어요. 그건 전란 탓이 아니었던 거죠. 도난을 당한 겁니다.” 무거운 석불을 어떻게 옮겨갈 수 있을까 싶지만 부분적으로 따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도난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조선시대부터 석불의 코를 갈아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풍문 탓에 석불의 코가 닳아 있는 경우도 많다.

최 교수는 이미 1995년에 《철불》이라는 책을 냈었다. “그땐 원고 매수가 200매에 불과했죠. 가벼운 마음으로 썼는데 사람들이 그 책을 열심히 읽고 더 알고자 하더군요. 자세한 명칭, 지도가 없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반교양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독자들의 눈이 굉장히 높고 날카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이번 저작의

배경으로도 작용했다.

“기존의 석불에 관한 원고가 있었는데 전부 개보수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썼어요. 이번에는 뭔가 다른 걸 알려줘야겠다고 고민했죠. 그래서 현상설명에 그치지 않고 도상과 양식, 신앙적 배경 등에 대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책에는 잘 알려진 ‘서산마애삼존불상’ ‘군위석불 삼존불상’ ‘승가사 석조승가대상’ 등의 국보급을 이외에도 ‘장흥의 용화사 석불좌상’ ‘여주 포초골 석불좌상’ 등 전공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좋은 문화재들도 소개되어 있다.

30년간 석불을 찍어온 안장현 사진작가의 사진은 이 책의 성과를 더하기에 맞춤하다. 독자들은 저자와 사진작가가 전국을 누빈 발품 덕에 귀한 우리 석불 80여 개를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또 석불 속에 나타난 부처의 모습을 통해 세속적 삶에 물든 자신을 돌아보고 정토淨土의 꿈을 찾아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호민**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